

2019.8.4.~ 8.6
----------------

중국 상해, 저우산
------------

---

# 국외출장보고서

---

2019.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

# I. 국외출장 개요

---

---

## 1. 출장목적

- 중국 조선산업 실태 파악
  - 중국 조우산 조선소, 수리조선소 동향과 생산계획, 현장 방문
  - 정책 시사점 발굴, 한-중 협력과제 모색
- KMI 중국연구센터 직원 면담
  - KMI 중국연구센터 감사 대비 점검 및 직원 격려

## 2. 출장일정 및 출장지

- 2019. 8. 4(일) ~ 8. 6(화) (2박 3일)
- 중국 상해 및 육횡도 조우산 조선소

## 3. 출장자

- 양창호 원장님
- 기획조정본부 김우호 본부장, 해운해사연구본부 황진희 본부장

## 4. 출장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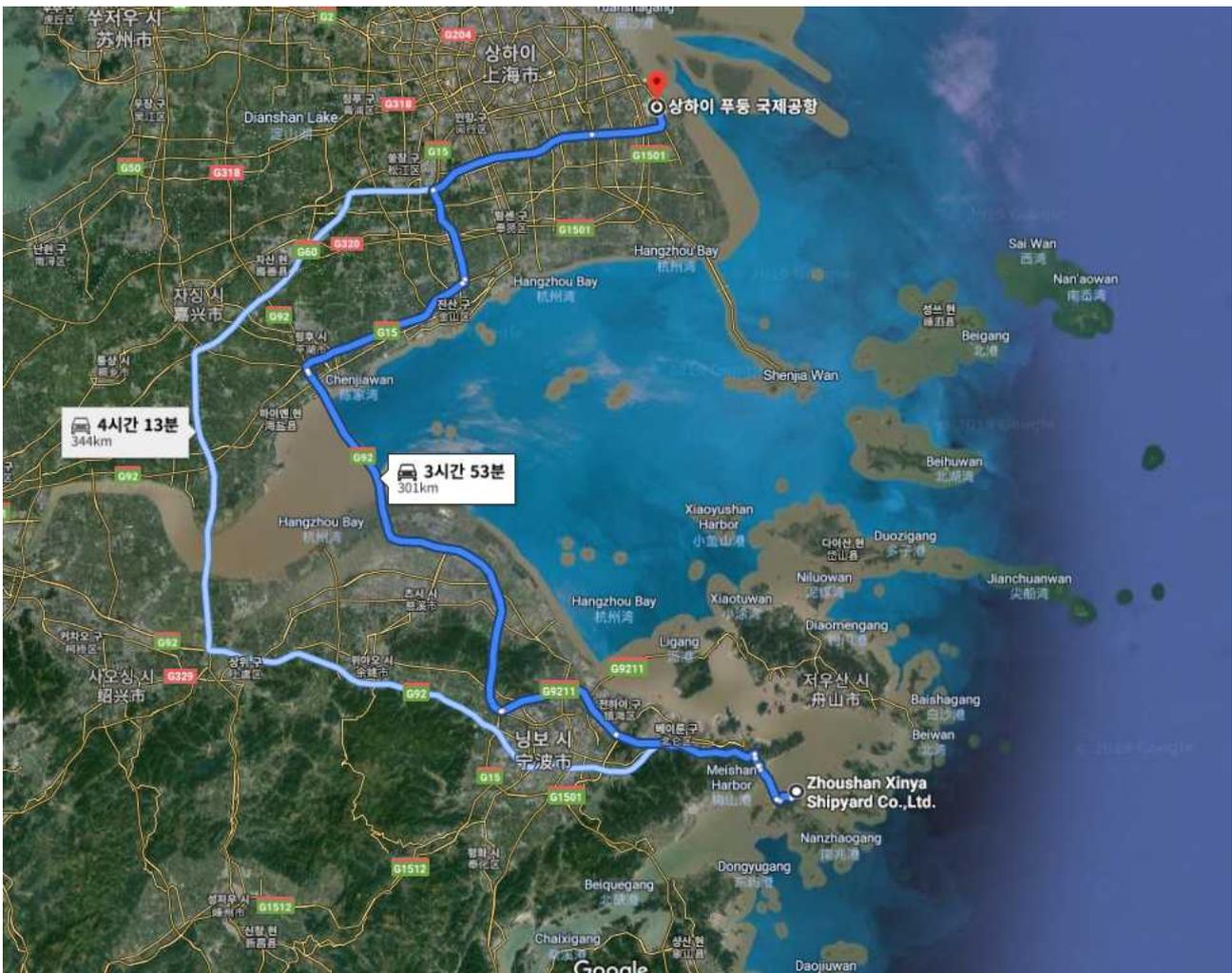
일정	시 간	세부 내용
8.4(일)	07:00	• 김해공항 집결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트)
	08:35~09:30	• 항공 이동(KE875) (김해공항→상해)
	12:20~13:10	• 항공 이동(MU5205) (상해→저우산)
	16:00~17:00	• 저우산 조선소( ZHOUSHAN XINYA SHIPYARD CO) 방문
	18:00~	• 조선소 직원과 식사(현대글로벌서비스) • Gangcheng Hotel
8.5(월)	09:30~10:00	• COSCO 수리조선소 방문
	10:00~15:00	• 저우산 특구/조선소 방문 • Xinya 조선소 방문
	18:00~	• 만찬
8.6(화)	08:00~11:00	• 복귀 (저우산→상해) 3시간
	11:00~12:00	• KMI 중국연구센터 간담회 (상해 공항)
	16:05~18:50	• 복귀 (상해 홍차오~김포; KE5900)
	20:00~21:00	• 김포~부산(KE1127)

## Ⅱ. 출장조사 내용

### 1. 저우산(舟山) 개요

- 저우산(舟山)은 1,390개의 섬이 있는 중국 최초의 해양개발특구
- 저우산의 경우 동부 연안에 있으면서 중국의 가장 큰 산업지대인 장강삼각주와 인접해 있어 물류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상하이를 포함하는 장강삼각주의 해양 진출 관문이 될 것으로 보여 상하이항의 물류 효율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저우산 해양경제특구가 저장성 일대 해양경제를 키우고 장강삼각주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내륙과 해양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저우산 위치>



- 중국 정부는 저우산 군도의 지리적인 가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군도를 종합개발, 항구 물류, 임항공업, 해양여행, 현대 어업, 신에너지, 해양과학 연구, 생태보호 등의 구역으로 분류하고, 10대 도시를 개발함
- 금번 출장에서는 리우형섬(六橫島) 안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했음

<리우형섬(六橫島) 지도>



- ① 진탕섬(金塘島) : 국제 컨테이너의 접속 운송, 저장운송, 부가가치서비스를 중점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현대 항구 물류업, 해양경제 장비 제조 등 임강 산업에 주력함.
- ② 리우형섬(六橫島) : 선박과 해양장비, 항구 물류, 대량 물류가공, 해양자원, 임강 석화 등 임강 산업을 제조하고 해수담화 및 해수 종합이용 등 신흥산업에 주력함.
- ③ 취산섬(衢山島) : 석유제품, 철광석, 석탄, 목재 등 대량 상품의 저장운송, 접속 운송, 가공, 무역과 함께 현대 임강 물류업 및 해양선박, 임강장비 제조, 해양풍력 등의 산업에 주력함.
- ④ 저우산본도 서북부(舟山本島西北部) : 선박수리, 해양공사, 선박부품 등 임강장비 제조 산업과 석유제품의 보관, 가공, 저장운송, 무역을 하고 주요한 종합 항구 물류기지이자 임강업기지임.

- ⑤ 다이산섬서남부(岱山島西南部) : 선박수리 제조기업과 선박 부품 생산기업에 의지해서 선박수리와 선박 부품 제조 등 선박 공업과 임항 장비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단지임.
- ⑥ 쓰지아오섬(泗礁島) : 대량 산적 저장운송, 중계 운송, 가공, 배송 등 현대 항구 물류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풍부한 천연 여행 자원으로 장강삼각주의 중요한 해양레저 여행기지임.
- ⑦ 쉰자지엔섬(朱家尖島) : 국가급 명승고적인 푸톈산(普陀山)이 위치하여 해양관광, 레저, 불교문화체험 등 해양여행업에 주력함.
- ⑧ 양산섬(洋山島) : 양산보세구와 임항 물류 부가가치서비스 기능, 국제 컨테이너 물류 창고, 보관, 환적선화운송, 배송, 가공, 무역에 주력함.
- ⑨ 창투섬(長涂島) : 선박수리 제조, 해양공사, 현대 어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임항 석화 산업 및 에너지 저장업에 주력함.
- ⑩ 샤스섬(蝦峙島) : 대량 물자 가공, 대형 수리선박 프로젝트, 항구 기계장비, 임항 제조업을 도입한 저우산군도 남부의 중요한 임항 산업기지이자 항구 물류기지임.

## 2. 절강지역 조선산업 현황

### 1) 지역 현황

- 2018년 절강성 내 선박관련 기업은 총 131개사임
- 이 중 조선소 110개, 선박 수리기업 9개, 선박 부대장비 기업, 8개, 요트 조선소 4개
- 절강성은 이미 저우산 조선산업 중심지를 기반으로 Ningbo(宁波), 파이크우, 윈저우 등 지역을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배치를 형성했음

### 2) 생산 경영 현황

- 2018년 절강성 선박관련 기업 총생산액은 251.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0.9% 하락, 주영업 수입은 191.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47.5% 하락
- 2018년 절강성 선박기업 누적 건조량은 279.9만 DWT로 전년동기대비 32.8% 하락, 신조선 수주량은 234.2만 DWT로 전년동기대비 23.1% 하락, 수주잔량은 795.6만 DWT로 전년동기대비 8.1% 하락
- 절강성 선박관련 기업의 총생산액, 수입, 신조선 수주량 등의 하락은 세계 해운 조선 경기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3) 2018년 절강성 주요 조선기업 현황

① 조선기업

조선기업	생산액 (억 위안)	건조량 (만 DWT)
청석(靑石)그룹 (저우산) 조선소	28.3	60.4
진해(金海) 조선소	21.1	21.4
저우산(舟山, Zhōushān) COSCO 조선소	12.8	44.2
양범 그룹	10.9	18.7
절강 신락 조선소	7.0	1.3
절강 중저우 조선소	6.6	4.2
저우산 장흥국제선박(수리&건조)그룹	6.1	34.4

② 수리기업

수리기업	생산액 (억 위안)	비고
저우산황신이야수리조선소	10.0	
저우산 COSCO 조선소	7.6	
저우산 장흥국제선박(수리&건조)그룹	7.0	
저우산 만방 조선소	5.1	

③ 해공장비기업

해공장비기업	생산액 (억 위안)	비고
태평양해양공정(저우산) 회사	2.0	

④ 선박 부대기업

선박부대기업	선박부대생산액(억 위안)
닝보중축동력전기회사	18.6
장저우 전진 그룹	5.4

### 3. 저우산 중원 중공업 (COSCO)

#### 1) 개요

-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 Co., Ltd.(CHI)은 COSCO SHIPPING 그룹에 속하는 조선소
- 동사는 대련, 난통, 치둥, 상하이, 저우산, 광둥 등 중국 해안선을 따라 가장 중요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여러 주요 자회사 조선소 및 기타 관계회사로 구성
-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 (Zhoushan) Co., Ltd.는 2004년 6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 Co., Ltd.는 가장 잠재력 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음
- COSCO 조선소 중공업은 중국에서 선박 수리, 전환, 해양 및 선박 신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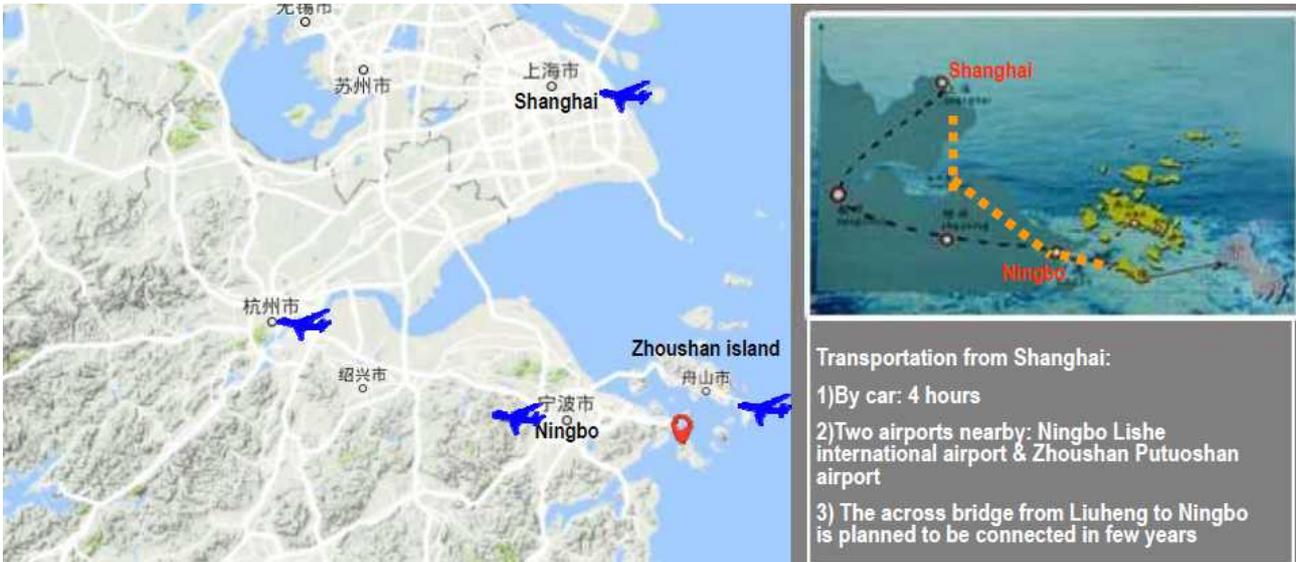
<중국 COSCO 조선소 현황(위치)>



#### 2) 위치 및 면적

- COSCO (Zhoushan) 조선소는 저우산(Zhoushan) 군도인 류홍섬(Liuheng Island)의 북서쪽 끝에 있음 (122 ° 05 '24 "E, 29 ° 46'90"N).
- 면적 200만 m<sup>2</sup>
- 해안선 4,060m

<저우산 COSCO 조선소 위치>



3) 주요 비즈니스

- 선박 수리 및 개조
- 오프 쇼어 수리 및 개조
- 신조

4) 조선소 배치도

- 일반 레이아웃은 2,000,000m<sup>2</sup>, 3개의 드라이 도크, 2개의 슬립웨이 및 7개의 부두로 총 해안선 길이는 4060미터

<조선소 레이아웃>



5) 주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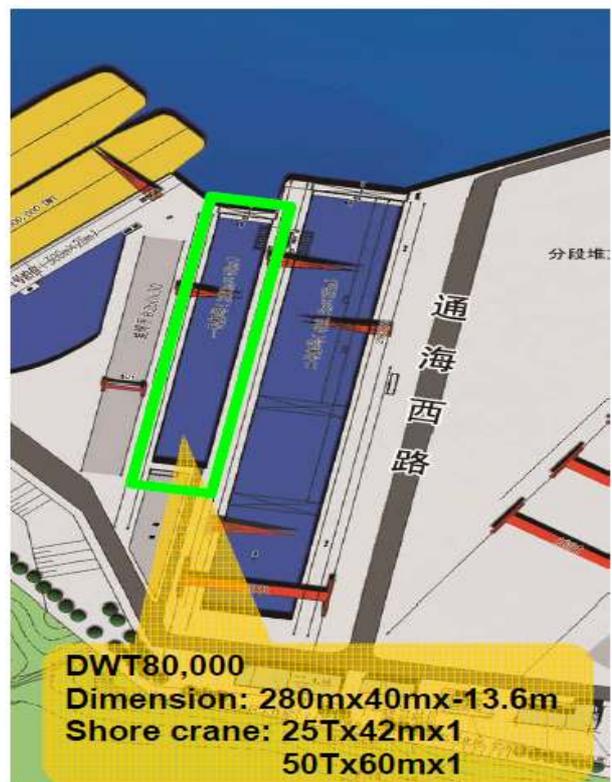
구분	시설 규모	수량
Dock	10만 톤 급	1개
”	10만 톤 + 8만 톤	1개
”	30만 톤	1개
안벽	10만 톤	2개
”	7만 톤	2개
”	10만 톤	1
”	15만 톤	2개
”	30만 톤	2개
컨트리 크레인	300톤	1개
”	160톤	2개
기중기	150톤	3개

□ Dry Dock 1

○ DWT 80,000

○ Dimension: 280m x 40m x - 13.6m

○ Shore crane : 25T x 42m x 1, 50T x 60m x 1d



□ Dry Dock 2

- DWT 300,000
- Dimension: 469mx68mx-15m
- Shore crane: 20T x 60m x 1, 25T x 60m x 1, 50T x 60m x 1
- Gantry crane: 300T x 108m x 1

6) 인력

- 관리인력 + 기술인력 : 1,400명
- 협력사 1,600명
- 하청인력 6,500명

7) 주요제품 및 시장

- 선박 건조 분야
  - 11.1만 DWT 탱커선
  - 15.2만 DWT 탱커선
  - 3,600TEU 컨테이너선
  - 5,000DWT Roro선
  - FPSO 반잠입식 드링링 플랫폼
  - 160m 수중 바지선
  - 150m 배관공사 선박
  - 3,600/3,300 급 컨테이너
  - 8.16만 DWT 건화물선
- 선박수리분야
  - 크루즈 수리
  - 컨테이너 수리
  - 탱커선 수리 : 탱커 단일선체 개조

8) 생산 경영 현황

- 2018년 저우산 COSCO 중공업 생산액은 20.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성장
- 주영업 수입은 18.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5% 하락
- 이윤 적자는 0.5억 위안임
- 2018년 저우산 COSCO 건조량은 44.2만 DWT, 전년동기대비 22.5% 하락
- 신조선 수주량은 46.5만 DWT 전년동기대비 42.6% 증가
- 수주잔량은 128.8만 DWT 전년동기대비 1.9% 증가

#### 4. 신야(鑫兒, XINYA) 선박수리유한회사

##### 1) 현황

- 설립 : 2002년 8월
- 위치 : 절강성 저우산 류홍섬
- 부지면적 : 20만 m<sup>2</sup>, 건축면적 7만m<sup>2</sup>
- 해안선 : 1,531m
- 인원수 : 1,000여명, 협력사 및 하청 2,800명

##### 2) 시설

구분	시설 규모	수량/규격
Dock No. 1	200,000	369×54×12.4
Dock No. 2	80,000	230×38×10.9
Dock No. 3	300,000	360×76×16 →610×91×16
Dock No. 5	180,000	300×46×14
Berth No 1, No. 2	200,000	405×20
Berth No 3	80,000	217×20
Berth No 5	150,000	250×30
Berth No 6	80,000	180×20
Berth No 7	80,000	292×25
Berth No 8, No. 9	300,000	560×25
Portal Crane	120톤	62×1
"	60톤	42×1
"	50톤	90×1
"	30톤	50×2
"	100톤	75×8
"	50톤	75×8
"	40톤	100×2
"	40톤	35×3
Gantry Crane	100톤	30×1
"	50톤	30×1
"	20톤	26.5×1
"	16톤	30×1
"	100톤	22×2
"	40톤	40×2
"	20톤	22×2

### 3) 주요제품 및 시장

- 수리분야 : 컨테이너선, 탱커선, 건화물선, 케미컬선, 공정선, RoRo선, LNG

### 4) 생산경영 현황

- 2008년 저우산 신이야 생산총액은 1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성장
- 주영업 수입은 8.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85 성장
- 이윤은 1.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2.5% 성장

### 5) 최근 동향

- 저우산 신야조선소는 현재 수리선 27척 중 13척이 스크러버 개조 선박 중임. 신야조선소는 중국 내 5대 수리조선소로 그 규모가 매우 큰 편
- 총 4개의 독을 보유 중이며, 최근 수리조선소로는 세계 최대인 길이 610m, 폭 91m의 독을 완성
- 초대형 유조선(VLCC) 2척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이 독에 현재는 한국 선명의 선박 등 총 5척이 함께 수리를 하고 있었음
- 회사 관계자들은 앞으로 2만 TEU급 선박은 물론, 앞으로 나올 3만 TEU급 선박까지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독이라고 자랑했음

## 4. 시사점

-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상생과 협력 발전을 위해 중국 수리조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대비는 물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을 감출 수 없음
- 우리나라 수리 조선소가 대부분 폐업을 한 상태에서 등장한 황산화물 배출가스 통제 등 IMO 환경규제는 신조선 건조 수요보다는 기존선에 스크로버를 장착하는 수리 조선업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음
- 이로 인해 스크로버 장착이라는 특수는 한국 조선소가 아닌 중국 조선소가 독차지를 했고, 스크로버 개발 기술도 외국 조선기자재 업체가 독식을 하고 일부 물량만 한국 기업이 차지했음
- 최근 중국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맞추기 위해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비한 스크러버 설치나 선박 평형수 규제에 대비한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설치와 같은 선박 개조 작업이 증가해 조선소 일감이 넘쳐난다고 함

- 저우산 COSCO 해운중공업에서는 올해에 이미 17척의 스크러버 개조 작업을 완료했고, 현재 총 100척의 개조 작업이 밀려 있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었음. 이러한 가운데 APL사의 1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에 대한 스크러버 개조 작업도 한창이었음. 원래 이 조선소는 신조선과 수리조선을 7대 3 정도로 했으나, 현재는 일부만 신조선을 진행하고 대부분 선박 개조 및 정기 수리 작업에 매달리고 있었음
  - 저우산 신야조선소는 현재 수리선 27척 중 13척이 스크러버 개조 선박. 신야조선소는 중국 내 5대 수리조선소로 그 규모가 큰 편에 속함. 총 4개의 독을 보유 중이며, 최근 수리조선소로는 세계 최대인 길이 610m, 폭 91m의 독을 완성했음. 초대형 유조선(VLCC) 2척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이 독에 현재는 한국 선명의 선박 등 총 5척이 함께 수리를 하고 있었음. 회사 관계자들은 앞으로 2만 TEU급 선박은 물론, 앞으로 나올 3만 TEU급 선박까지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독이라고 자랑했음
  - 저우산 룡산조선소는 케이프사이즈 독 등 총 2개의 독을 보유한 조선소로 연간 200척의 드라이도킹 수리 및 개조 선박을 처리하는데, 이 중 30%가 한국 고객이라고 했음. 수리 및 개조 선박을 위한 기계 전기 등의 인력은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고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함. 조선소 야적장에는 수입된 스크러버가 포장된 채 즐비하게 놓여 있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 물량이 짝 차 있어 빈 독을 잡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함
- 이러한 현상은 처음있는 일이 아님. 선박평형수 규제가 시작되면 관련 기술이 한국기업이 앞섰기에 세계 시장을 우리나라가 기업이 독식할 수 있다는 일부 해사안전 및 조선 기술 관계자의 낙관적 기대는 엄청난 실망을 가져왔음
- 우리나라 해운-조선업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부터 큰 흐름의 변화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함
- 국제기구의 정책, 화주의 니즈, 기술의 변화, 선사의 경쟁과 대응 등을 정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부족한 분야를 도출하고 강점은 더 키우고 약점은 해결하는 조직적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나 자본주의적 기업 경영방식이 이미 오래 전에 도입되었고, 해운과 조선이 하나의 그룹에 편성되어 수급을 조절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주목하고 국내에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그간 해운-조선 행정의 일원화를 주장했으나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음

- 행정의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해운-조선의 일원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 국내 기업의 해운-조선 일원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
- 저우산 COSCO 해운중공업은 신조선과 개조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특성으로 신조선 시황이 나빠지면 개조 및 수리조선에 집중해서 조선소를 유지하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성동조선이나 STX조선, 오리엔트조선 등 중소 조선사가 힘을 합쳐서 선박 개조 호황기에 이 일을 맡아서 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우리나라 조선소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수리 및 개조 조선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 조선소와 경쟁할 수 있는 수리조선 작업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선박 개조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수리 및 개조 조선 물량을 갖고 있는 국내 선박관리업체들은 수십 척의 개조 선박 물량을 군산조선소 등 우리의 중소조선소 대신 중국 조선소에 넘겨주는 현실에 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국내 조선소의 수리·개조 작업의 경험 부족 문제를 지적함
- 개조 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개조 조선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의 중소조선소도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역사회의 활력도 되찾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자료>

□ 저우산 군도 현황

- 저우산 군도 신구(舟山群岛新区, Zhoushan Islands District, 이하 저우산 개발구)는 환태평양 서쪽 해안, 중국 동남부 연안, 저장성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중국 경제의 활력이 넘치는 장강삼각주 최전방에 위치함.
- 육지면적 1440km<sup>2</sup>, 해안면적 20800km<sup>2</sup>, 상주인구 123만 명, 섬 개수: 1390개
  - 2011년 6월 30일 국무원의 정식 비준을 받아 설립함.
  - 상하이 푸둥 개발구(上海浦东新区), 천진빈하이개발구(天津滨海新区), 충칭양강개발구(重庆两江新区) 이후 4번째로 설립된 국가급 개발구임.
  - 장강삼각주지역(저장, 상하이, 장수)은 중국 공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관련 인프라가 잘 조성된 지역임.

□ 저우산 신구의 지리적·입지적 강점

(입지)

- 저우산(舟山)은 장강삼각주 중심지역을 등지고 중국의 동부 해안선과 양쯔강 수로가 합류하는 곳에 위치함
- 저우산은 중국 남북 연해 항로와 장강 라인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장강 유역과 장강삼각주 대외 개방의 해상 문호 및 통로이며 동북아시아 및 서태평양의 주력 항구로 부산, 나가사키, 가오슝(高雄), 홍콩, 싱가포르 등 500해리 거리의 부채꼴 해운 네트워크를 구성함.

(육로 교통)

- 2009년 12월 25일 개통한 50km에 가까운 저우산 대교(舟山跨海大桥)는 저우산(舟山) 섬과 주변의 작은 섬들을 대륙과 연결함.
- 상하이와 저우산 샤오양산(小洋山)섬을 연결하는 동하이 대교(东海大桥)는 3시간 내외로 상하이까지 이동할 수 있음.

(해상운송 교통)

- 해상 여객은 연해 각종 도시 항구와 통하고 원양운수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의 항구와 직통으로 연결됨.
- 매일 상하이, 닝보 등 항구도시를 왕복하는 배편과 대륙과 통하는 60여 종의 항로가 있음.
- 저우산시의 항구 개방 면적은 1165km<sup>2</sup>임.

(항공)

○ 주자지엔(朱家尖) 섬에 위치한 보타산(舟山普陀山) 공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샤먼(厦門), 진장(晋江) 등 여러 항공편이 있음.

□ 저우산 신구의 비즈니스 지역 및 중심 산업체계

○ 선박산업 단지

- 초대형 유조선, 대형 컨테이너선, 유람선, 특수 선박 등의 생산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 연간 선박 완공량은 1000만 중량톤에 달하고 선박 수리는 전 중국의 20%를 차지하며 5개 기업이 전국 20장에 진입함.

○ 해양여행산업 단지

- “주자지엔섬(朱家尖島)”이 핵심이 된 푸뉘(普陀) 삼각지대, 관세음문화체험구역(观音文化体验区), 항구경치유람구역(港城景观游览区), 섬마을체험구역(经典岛村乐居区), 빈하이종합휴양구역(滨海综合度假区), 섬레저구역(岛屿会所休闲区), 섬생태시범구역(海岛生态示范区) 등 6개의 특색 있는 해양 여행 구역으로 구성됨.
- 정기여객선, 유람선, 바다낚시, 레저, 참배 등 다섯 가지의 해양기지가 있고 테마여행 섬을 목표로 여행시설, 상품, 품질, 브랜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임.

○ 현대 어업 단지

- 어업 능력의 향상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친 현대 어업 산업 단지임.

○ 대량 물자 가공산업 단지

- 석탄, 광사, 식량과 식용유, 목재, 비철금속 등 가공 항목을 중점적으로 중국 연해의 중요한 대량 물자 가공산업 단지를 건설함.
- 푸뉘용취 배송센터(普陀永晖煤炭配送中心), 리우형중취완 에탄올 연료 프로젝트(六横棕榈湾燃料乙醇项目), 샤오취산 목재 창고 가공기지(小衢山木材仓储加工基地), 샤오취산 대형 구조재 가공기지(小衢山大型构件加工基地), 라오탕산 식량·식용유 가공기지(老塘山粮油加工基地), 창투 대량 포장가공(长涂大宗散货仓储加工)이 있음.

○ 임항 석화 산업 단지

- 저우산 석화 공사를 추진하고 닝보-저우산 임항 석화 구역과 샤오귀지 개발구 공사를 추진함.

□ 저우산 신구의 중점 유치 방향

○ 국제물류 대량화물기지 건설

- 국제물류기지를 건설하고 국제물류섬으로 만드는 것이 해양 종합개발구의 중점적인 내용임.
- 신항구 관리 모델을 창조하고 하나의 항구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눈(一港多区) 보세구를 계획적으로 설립함.
- 전국의 중요한 철광석 중계무역, 석탄 중계가공 배송, 석유제품 중계무역 창고, 양식 중계가공 배송, 화학공업 중계 저장 운수, 컨테이너 환적선화 운송 등 6개의 큰 기지를 만듦. 삼위일체의 항구 서비스 시스템을 위해 노력함.
- 2015년까지 저우산 해운운송능력이 800만 중량톤에 달하도록 노력하고 그중 국제항공의 선박운력이 60만 중량톤, 항구 화물 물동량 4억 톤, 항구 물류업의 증가치가 지역내 총생산의 15% 이상에 달하는 것이 목표임.

○ 현대해양산업기지

- 선박, 해양레저, 현대 어업, 임강 석화와 대량화물 가공 등의 산업군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임항 장비, 해양생물, 신에너지와 해수 이용 등 전략적인 신형 산업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해양 프로젝트를 넘어 전국 일류의 현대 어업 산업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임.
- 방직, 나사, 화학섬유, 자동차 부속품, 전기 전자 등 전통적인 산업을 재정비하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적인 발전을 추진함.
- 고효율의 생태농업 발전, 무공해 야채 기지와 현대 농업구를 만들어 농어업의 선두 기업을 양성하고 상품과 공급과 판매를 일체화하는 시스템을 만듦.

○ 국가급 해양과학 기지

- 해양과학기술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도시발전 소프트파워의 관건임.
- 저장대학 저우산 해양연구센터, 해양개발연구원, 성급첨단기술산업구 등을 건설해 산학연의 핵심 기술 연구를 도모함.

□ 저우산 신구 10대 개발 섬

- 저우산 군도의 지리적인 가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군도를 종합개발, 항구 물류, 임항공업, 해양여행, 현대 어업, 신에너지, 해양과학 연구, 생태보호 등의 구역으로 분류함.

- ① 진탕섬(金塘島)
  - 국제 컨테이너의 접속 운송, 저장운송, 부가가치서비스를 중점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현대 항구 물류업, 해양경제 장비 제조 등 임강 산업에 주력함.
- ② 리우형섬(六橫島)
  - 선박과 해양장비, 항구 물류, 대량 물류가공, 해양자원, 임강 석화 등 임강 산업을 제조하고 해수담화 및 해수 종합이용 등 신흥산업에 주력함.
- ③ 취산섬(衢山島)
  - 석유제품, 철광석, 석탄, 목재 등 대량 상품의 저장운송, 접속 운송, 가공, 무역과 함께 현대 임강 물류업 및 해양선박, 임강장비 제조, 해양풍력 등의 산업에 주력함.
- ④ 저우산본도 서북부(舟山本島西北部)
  - 선박수리, 해양공사, 선박부품 등 임강장비 제조 산업과 석유제품의 보관, 가공, 저장운송, 무역을 하고 주요한 종합 항구 물류기지이자 임강업기지임.
- ⑤ 다이산섬서남부(岱山島西南部)
  - 선박수리 제조기업과 선박 부품 생산기업에 의지해서 선박수리와 선박 부품 제조 등 선박 공업과 임항 장비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단지임.
- ⑥ 쓰지아오섬(泗礁島)
  - 대량 산적 저장운송, 중계 운송, 가공, 배송 등 현대 항구 물류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풍부한 천연 여행 자원으로 장강삼각주의 중요한 해양레저 여행 기지임.
- ⑦ 쉰자지엔섬(朱家尖島)
  - 국가급 명승고적인 푸톈산(普陀山)이 위치하여 해양관광, 레저, 불교문화체험 등 해양여행업에 주력함.
- ⑧ 양산섬(洋山島)
  - 양산보세구와 임항 물류 부가가치서비스 기능, 국제 컨테이너 물류 창고, 보관, 환적선화운송, 배송, 가공, 무역에 주력함.
- ⑨ 창투섬(長涂島)
  - 선박수리 제조, 해양공사, 현대 어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임항 석화 산업 및 에너지

저장업에 주력함.

⑩ 샤스섬(虾峙島)

- 대량 물자 가공, 대형 수리선박 프로젝트, 항구 기계장비, 임항 제조업을 도입한 저우산 군도 남부의 중요한 임항 산업기지이자 항구 물류기지임.

□ 저장성 닝보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 저장성 닝보는 항구자원의 우세가 돋보이는 곳으로, 닝보-저우산항의 화물 물동량은 수년간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음. 2016년에는 전 세계 처음으로 9억 톤을 돌파
  - 그 밖에 장기간의 대외개방 합작의 기반을 갖추어 국제운영환경이 구비되고, 비교적 진취적인 민영경제 및 두터운 역사문화가 잠재

- 2017년 9월 8일 저장성 정부는 닝보를 '일대일로' 종합시범구로 지정, 9월 21일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실시방안'을 발표함.

- 저장성 정부는 닝보지역을 항항물류중심, 투자무역편리화 선행도시, 산업과학기술합작 선도 도시, 금융보험서비스 시범 및 인문교류포털 등 적극 주도해 일대일로 전략의 허브도시로 부상 시킬 것을 주장

- 2020년까지 닝보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목표

- 닝보에 내륙 무수항(无水港) 무려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전문 일대일로 주변국 국제항행선을 5개 이상, 국제항공 선로를 5개 증설
-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무역액이 400억 달러 이상, 국경간전자상거래 교역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 해외 산업단지 5개 증설, 해외투자 총액이 25억 달러, 본토 다국적 기업이 5개사 이상 배출
- 인민폐 국경 간 수입이 외화 총수입 비중의 30% 차지
- 우호도시 수량 100개로 늘려 민간 및 정부의 교류 강화

□ 저장성 육상, 해상, 온라인, 항공 실크로드 전면 실시

- (육상 실크로드)국제화물열차 발전

- 저장성 이우(義烏)는 중국의 국제화물철도 운행의 중요한 출발도시임. 저장성은 이우(義烏)-유럽 화물열차를 중심으로 육상 실크로드의 발전을 추진 중
- 현재 중국 내 운행 중인 51개 정기 노선 중 마드리드, Minsk, 이스탄불 등 국가를 향하는 4개 노선이 이우(義烏)에서 출발 및 도착
- 또한 2020~2021년 완공 예정인 닝보(寧波)-이우(義烏), 항저우(杭州)-이우(義烏)-원저

우(溫州) 구간의 철도 철로가 연결되면 국제화물철도 이용 편의성이 저장성 전역뿐만 아니라 장시(江西), 상하이(上海), 장수(江蘇), 푸젠(福建), 후난(湖南) 등 주변 지역에도 이르게 됨.

- (해상 실크로드) 중국 최대 규모의 닝보-저우산항을 적극 이용
  -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 저장성 저우산(舟山群島)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해 저장성 닝보(寧波)-저우산(舟山)항을 중심으로 해상 실크로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
  - 닝보(寧波)와 저우산(舟山)은 현재 고속도로 및 철로를 연결 추진 중이며, 교통·물류의 통합은 보다 긴밀화되고 있음. 저장성 내 육상 실크로드는 물론,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저장성 저우산(舟山)에 위치한 어우화(歐華) 조선소를 발전시켜 닝보(寧波)-저우산(舟山)항의 해상 실크로드 발전 기능을 조선업 측면에서 보강할 계획
  
- (온라인 실크로드) 항저우 전자상거래무역 발전
  - 저장성 항저우(杭州)는 2015년 3월 중국 국무원에 의해 국가급 국제전자상거래무역 종합시험구로 지정됐음. 알리바바, T mall, 알리페이, EMS 등 현재 중국 전체 종합전자상거래 관련 사이트의 1/3이 항저우(杭州)에 소재할 정도로 전자상거래 산업이 발전
  - 이에 따라 저장성 동췌(東鐵) 당서기는 2017년 6월 저장성은 항저우 종합전자상거래 중심의 정보항(信息港)을 육성해 이른바 '온라인 실크로드'에 의한 일대일로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선언
  - 항저우는 2017년 말까지 통관, 세금환급, 금융, 물류 등에서 실질적인 혁신정책 시행하고 국제전자상거래무역 기업 5000개 이상 연결해 300억 달러 이상 수출, 100억 달러 이상 수입 실현(항주시에서만 60억 달러 수출, 40억 달러 수입 목표)
  
- (항공실크로드) 항주 국제공항 및 항공산업 발전
  - 저장성은 항저우국제공항 구역의 발전을 주축으로 첨단 제조구역, 생태 구역 발전 및 지하철 연결. 2020년까지 국제 항공노선을 40개 이상으로 확대 목표 등을 추진 중임.
  - 저장성은 러시아 우정국과 2017년 6월 말부터 항저우-러시아 간 매주 3회, 최대 28.5톤의 항공 우편화물을 운송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함. 항공 분야에서 일대일로 건설에 기여하는 의미를 부여
  - 저장성은 저우산에 미국의 보잉사 비행기 제조 공장을 유치(2017년 5월)하고, 체코 Direct Fly 등 회사 인수로 경비행기 제조 관련 540여 개 지적재산권을 획득
  - 또한 캐나다의 항공기 제조업체 DAI-C 인수 협상도 진행 중인바, 이를 통해 항공기 제조산업 발전은 물론 항공분야 일대일로 발전을 추진 중임.

□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단지 건설 및 운영 확대

- 저장성 상인의 뛰어난 상업 능력은 중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함. 저장성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 경제 확장을 도모
  - 현재 중국 모든 지방이 외국에 설립 중인 공업·산업단지가 총 20개인데, 그 중 6개가 저장성 상인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즉, 러시아 우수리스크(烏蘇里斯克) 공업단지, 우즈베키스탄 평성(鵬盛) 공업단지, 세르비아 베이얼마이커(貝爾麥克) 합작단지, 태국 내 타이중뤄용(泰中羅勇) 공업단지, 베트남 중국룽장(中國龍江) 공업단지, 멕시코 화푸산(華富山) 공업단지 등이 있음.
- 저장성은 현재 일대일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총 8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중 외국과 합작·협력하는 사업이 62개에 달함.
  - 인도네시아와 9개 사업, 베트남과 6개 사업, 터키와 5개 사업, 키르기스스탄과 4개 사업, 러시아·이란·체코·태국·캄보디아와 각 3개 사업 등(한국은 아직 협력참여 사업이 없음)

□ 국제 박람회·무역상담회 적극 개최

- 저장성은 매년 각종 국제 박람회·무역상담회를 개최해 경제확장 및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아래 박람회의 경우 성정부 차원에서 매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주요 상담회로는 중국-중동·유럽 국가투자무역박람회, 중국 저장투자무역상담회, 중국 국제 일용·소비품 박람회, 국제자동차박람회 중국 저장 상무서비스·교역서비스 박람회, 국제 소상공품 박람회, 중국 플라스틱 제품 박람회 등이 있음.

□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추진

- 저장성 저우산은 미국 마이애미 항구처럼 국제적인 크루즈 관광도시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국제 크루즈 관광을 유치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 2016년 11월 20일 저우산에서 출발한 중화태산(中華泰山) 크루즈선이 860명의 여객을 싣고 3박 4일의 여정으로 한국 제주도과 일본 후쿠오카를 거쳐 나가사키에 도착토록 한 바 있음.
- 저우산시는 매년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고 바다섬 발전을 공유하자'라는 주제의 '국제 바다섬 여행대회(國際海島旅遊大會)'를 개최함. '일대일로' 주변 국가 및 한국·일본 등 주변국의 관광공사와 기구, 관련 기업 등에서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시사점

- 저장성은 현지의 자연적인 우세와 지역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지역으로 돋보이고 있음.

- 저장성 및 주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저장성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으로 인해 개선된 인프라 환경을 적극 이용한 대유럽·중아시아·러시아 수출입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 닝보-저우산항 및 자유무역시험구,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등 발전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동 지역에서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함이 필요
- 중국이 일대일로 주변국 등 세계 각국 수출입 시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발전시키고 있는 전자상거래무역 시스템을 한국 기업도 함께 이용하거나 구축에 동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저장성의 대외 경제협력단지는 대부분 저장성 민간 상인들 주도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 저장성 민간 상인들의 상업 능력 및 국제사회 진출 위상을 감안, 저장성 상인들과의 적극적 협력·합작 방안 검토 필요
  - 저장성의 현 62개 대외경제협력사업 중 한국이 참여 한 사업이 아직 없음을 감안, 한국에서도 참여 가능 사업 발굴도 검토 필요